

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8년 5월 18일 (월) 제714호

편입비리 심재일 교수와 2명 구속

수십억 챙긴 박승준은 검찰 소환 조사 예정 뿐

96. 97학년도 편입학부정과 관련 심재일(영어교수), 이광구 당시 교무부 차장, 이정규 당시 입학처장 등 명예 지난 19일(수)으로 결합에 의해 구속됐다. 일례로 비와 같이 세 사람은 전 총무처장 한경현(현재 미국도미 중씨)의 지시로 단입자를 작성하고 이를 교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96, 97년 2년간 9명을 편입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학생들과 동료교수들을 중심으로 삼성일고 수의 석방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월) 심교수가 발표한 양심선언을 들려 "학자적 양심을 지켰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심교수는 박교수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편입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속았다. "관행이라 단입자를 작성해주었다" 등이 중심이었다.

이에 대해 같은 곳 이상준교수는 "심교수는 관련으로 굳어져는 단입자작성 때문에 구속했는데 그것으로 수십억을 챙긴 박승준은 아직 말했다"며 "그러나 박승준 구속은 확신하며 그렇지 않다면 투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번 주중에 박승준이 구속될 것이라는 추측이 대학당국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날 교육부는 유리학교 92~97학년도 휴학생수를 축소 보고하면서 편입생을 초과모집했다며 99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정원, 편입학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부의 내용은 '이광구 씨에게 속았다'는 관행이라 단입자를 작성해주었다' 등이 중심이었다.

한편 이사회 구성자체의 원인무효가 확인된 가운데 서재명교수의 총장선출을 인정하는 듯한 교무부의 태도로 새로운 논란이 있고 있다. 인터넷 교육부 홈페이지에 14일(목)자로 올라온 글이 서재명 '총장' 직책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관행조사 3면
학생들과 학내 구성원들은 다음 투쟁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서울대배움터 학생들은 지난 19일(월)을 둘어 새벽째로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교법률을 미루리하고 앞으로의 재단부정방안에 대해 애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경영 4)군은 '외대중원' 원년 1989년 제 23회를 선포한다며 그 러나 앞으로도 푸정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 관행조사 3면
박승준 기자

서총련·경인총련 대의원 대회 성사

정식체계 건설로 학생운동 강화 계기될 듯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과 경인총련(경인총련)은 각각 19일(수)과 19일(금) 대의원대회를 열고 11기 서총련과 5기 경인총련을 정식으로 결선했다. 경인총련의 대의원대회 무산 및 대의원 정원 경기 방침으로 대의원대회 성사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서총련과 경인총련은 각각 13일과 15일 서울대에서 대의원대회를 성사시켰다. 서총련은 예초에 12일(화) 서울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서울대가 원천불승인해 13일 새벽 기습적으로 서울대로 들어가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경인총련 역시 15일 경기 대수원대회에서 대의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대가 원천불승인해 15일 밤 서울대로 잠소를 끌어 진행했다.

11기 서총련 의장은 김현숙(경기대 서총련 배움터 총학생회장)군이, 5기 경인

총련 의장은 김학민(경기대 수원배움터 총학생회장)이 각각 당선됐다.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서총련과 경인총련에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효대의원 29명 중 18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서총련 대의원대회에서는 11기 서총련 의장 유재우·류·개표, 총노선 책택에 관한 토론회 등이 있었다.

▶ 8년으로 이어짐
김길신 기자

500년 비스노스이 반영했다 3면
비스 노선을 자기 대대로 바꾸는 버스회사와 이 조차도 모르고 있는 대학당국의 차이는 건 학생들이다.

대학내 상설역 사건 특집취재 6면
외대도 성폭력 사건 비밀비재, 성폭력 사건에 비상구는 없다.

이후 대학 불법의 진정한 대안은 10면
어떻게 대학을 구성하고 있는 학원 3단체에 의해 학교운영이 결정되는 기구가 생겨가 맞는 것 아니에요?

통일 민간 교류 활성화 5면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민간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보수적 법제도에 발목 잡힌 점을 발 이 정책.



지난 19일(수)과 19일(금), 서울대 관악 배움터에서는 각각 서총련과 경인총련 대의원대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정부는 한총련 재건과 노학연대를 무려 대의원 강소를 원천불승인하고 불신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전은 13일 대통령이 한총련 서울대 교내에 경찰헬기기 비 침탈위험을 하는 방송을 하고 있다.

임종희 기자

번영자

5·18과 김대중 정권

▲ 너를 민주의 성지(聖地)로 부르기엔 아직 이르다. 살 아남은 자의 부끄러운 입으로 너를 위대한 도시라 친양하기엔 아직도 우리의 입술이 무겁기만 하다(문방인·광주에 비치는 노래).

이제는 5·18을 모르는 사람은 있을까? 그간 많이도 알렸고 그 역사적 힘기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18주년을 맞는 오월 광주는 너무나 조용하다.

▲ 그 조용함은 무엇보다 50년만의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데 기인한 듯하다.

군사독재정권의 역사법률화으로 사회경찰체계, 정치적 소외를 당해온 광주, 호남민족들에게 김대중대통령은 자기 삶의 수난과 동일시되어온 운명공동체, 회암의 우상으로 자리잡았다.

▲ 5·18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2회 영령이 목숨을 바친 5·18은 기념의 날이 되어 모든 것을 역사에 묻고 화합과 용서의 길로 나아가자는 경족행사가 될 수 없다.

5·18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만이 살아남은 자의 부끄러운 입으로 광주·민주의 성지가 부르고, 위대한 도시라 친양하는데 암시의 거리낌없는 길이 될 것이다.

김정희

허허! 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용서한다

그 대통령이 되던 날

많은 광주 시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간의 힘박과 설움을 단번에 보상받은 듯한 기쁨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5·18의 주동자인 이들을 사면시키며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광주의 아픔을, 슬픔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조속히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열사들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

그리고 미국의 공개사과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족자주인문
외대학보

IMF 시대에 하루 교통비만 4천원

용인, 500번 버스노선 변경으로 피해 사례 속출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서 출발하는 500번 좌석버스의 노선 변경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용인버스터미널 고질적인 문제로 교통문제로 대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500번 버스의 바뀌기 전 노선은 교대·임대·분당·외대(모orsk)였으나 분당 내에서 여러 단지를 거쳐고 용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운행방식에서, 분당의 중심부만 통과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분당에서 용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학생의 경우 500번이 통과하는 분당의 중심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일 경우 큰 영향이 없으나 이전에 운행하던 승차장 근처 지역에서는 통행하는 학생들의 경우 분당에서 하루 차비만 4천원을 써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분당에서 용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학생들은 물론 분당 거주 학생들이 이를 위해 용인버스터미널 고장난다. 예전에는 용인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학생들은 운행하기 터미널에서 가까운 지역인 분당에서 조차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상황에서 하루 교통비로 선원을 소비해야 하고 식사비까지 핵심이 하루에 7천원이랑은 학교를 다니는데 써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노선을 바꾸었는지 대학당국은 명확히 해명하고 시급히 대처를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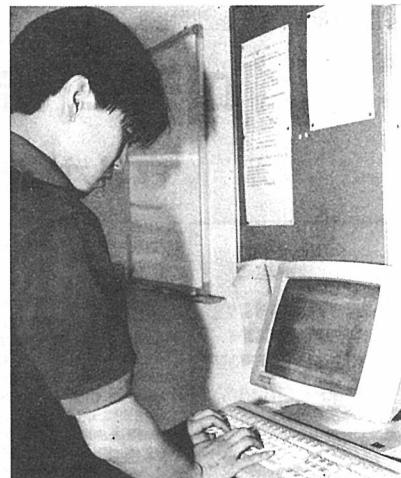
이에 대해 용인버스터미널 승차장과 터미널에 있는 버스회사 한 관계자는 "원래 500번 버스의 노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노선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바꿔야 했지만, 다만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시행하면서 않고 분당 내의 여러 단지를 거친 것 뿐이다"며 "오히려 500번 버스의 노선 변경으로 서울 강남지역에서 통행하는 학생들은 운행기 리 단축으로 빠른 시간안에 학교로 들어올 수 있어 좋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이전에 대학당국과 현재 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버스 운행을 시작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그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00번 버스가 노선을 변경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대학당국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빛인지 알았겠다"고 답했다.

앞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충청대학 중앙집행위원장 김강식(동화·아프리카어 4)은 "제 단부터 이미 미루어 되지 않아 교통 문제로 관련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다"며 "용인 학우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교통문제를 충청대학 학원자주화투쟁특별위원회(학자특위)에서 철저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재권 기자



한 학기에 두세건

우리학교 영상·음악 도서관에 최신 프로그램 이 거의 없는데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그러나 학교에서도 교수들의 자료신청 이외에 학생들의 신청은 한 학기에 겨우 두세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측의 신규프로그램에 대한 활발한 홍보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필요하다

임승희 기자

취재 낙수

제도언론의 보도행태

진짜 총장은 누구(?)

지난 주까지 연일 신문과 TV에 등장하던 '외대 재단 사태'는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발표로 그 열기가 조금 누그러진듯하다. 우리학교를 편집부 부정비리 사건으로 유령하게 만든다.

재단시대의 본질은 분명 편집부 부정비리가 아님에도 연일 정부에 의해 놀라우고 있는 언론들이 제도언론이라 부른다. 그것이 전부인 암 땅들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인 즉슨 얼마전에 선임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목표가 '부정·임시비리 척결'을 내세우면서 제도언론에서는 어제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사회대학의 본질적인 문제는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을에도 그 문제의 본질은 재단시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현 편집부 교육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또 우리학교에 대한 보도뿐 아니라 다른 대학 재단시대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입시·부정비리'로 치우쳐져 있다.

총격학과 사건과 비리와 죽어나던 끝 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타파하기 위한 우리 구성원들의 노력이 얼마나 눈물 죽은 것인지는 그들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

파연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말하는 '언론개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이다.

이승준 기자

용인 '외대사태진상규명을 위한 공청회' 분석

"친박승준 세력에 면죄부 주는 자리였다"

용인 공청회, 참석자들의 일방적 변명 듣는 자리로 끝나

지난 14일(목) 용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사회자인 나주원 등이 연설을 통해 서재명 교수에게 총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충청대학에 확인해 본 결과 부총장회장 임정민 교수 직임 교육부 인사관련 책임자와 통화해 알아낸 사실임이 밝혀졌다.

같은 날짜로 인터넷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다. '서립교과법 총장의 일명은 서재명교수, 김인섭 등원회장, 박종현(서장 85)은 등원회 회사무국 등에 참여하고 조규월 총장 직무대행과 청진·도동조합장을 이미

특급간호사로 나온 충청대학에서 참석한 이유가 있다'며 불참했다.

질문은 국정토론회식으로 진행됐던 이번 행사는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이 참석한 후에 청진·도동조합장을 제시하겠다고 대답했다.

경인실 충청대학에서는 그동안 서울에 몰려 충청대학이 박승준의 비호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던 인물이라 박승준에 대한 입장이 어떤 관심이 높았다.

'선언이시면 자신은 어떠해야 하다가'라는 질문의 답변 속에서 간접적으로 그의 입장은 확연히 드러난다.

공청회 사회를 맡았던 등원회 회장 나주원은 "특검결과가 나오면서 분규가 어느정도 경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누구를 처벌하는지에 대한 조언이나 회의워苣조에

선언 번역이유에 관해서는 '김종국에 의해 오해가 차단된 상태에 내가 조급하게 진실을 알게 돼 기자 조중현이 조급하게 어제 대체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서면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알고는 아닐뿐인줄 알아 면서 면복했다'며

서재명교수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박기사와의 관계에 대해 '내대체 와 나를 박승준으로 대리인으로 보는지 모르겠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던 사람은 대체로 해결될 줄 알았기 때문이다'며 '밀월설'을 부인했다.

또 용인버스터미널 사무국장은 중도자연 입장을 중심으로 하는 듯하다가 이번 '서대'의 배후에 대해 고속적

가로 제기했다. 즉 원래는 재단내부의 소소한 싸움이었으나 특검세력이 개입하고 이간질시키면서 서대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또 용인버스터미널의 학교이전에 대한 의견은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공청회 사회를 맡았던 등원회 회장 나주원은 "특검결과가 나오면서 분규가 어느정도 경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누구를 처벌하는지에 대한 조언이나 회의워苣조에

의 과정이 돼야하기 때문에 학내구성원들은 진실을 알아야한다"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버스터미널 충청대학회장 오승근은 "침몰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투쟁해온 구성원에게 잘못을 들리는 듯한 참가자들의 태도는 진실을 호도하고 투쟁의 초기점을 흐트렸다"고 밝혔다.

용인총회에서는 이에 대해 '정건 조합장과 조규월 총장직무대행이 참석하지 않는 바탕으로 대체로 진정되지 못한 면이 있었으나 자신의 입장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대처하는 분위기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언론인의 집행 2국장 강민홍(서장·독일어 4. 헤리)은 "진상규명이 하나도 안됐다"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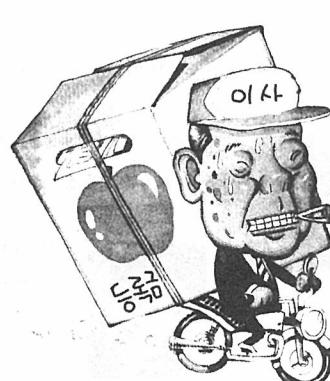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투쟁으로 외대발전을 기록하는 세력을 물고내고 그들을 영원히 후원하는 것인데 이를 공청회는 재단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자리이성이 아니었다"고 혹평했다.

박윤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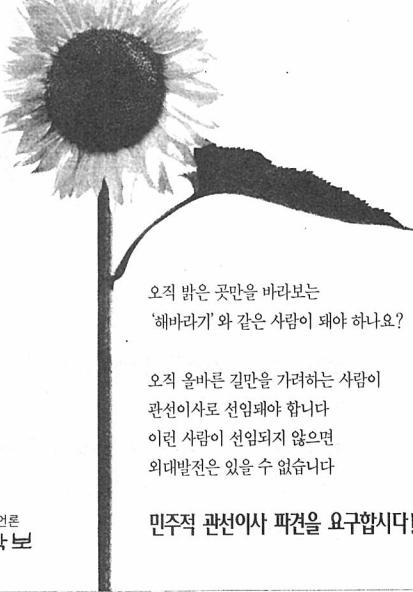
관선이사는 어떤 사람?



돈만 준다면 부정 편·입학도 허락해 줄 사람이
돼야 할까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학생 등록금까지 빼돌리는 사람이
돼야 할까요?



오직 밝은 꽃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사람이 돼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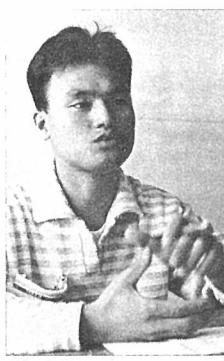
오직 올바른 길만을 가려하는 사람이
관선이사로 선임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선임되지 않으면
외대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합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단기 나보기 - 김현배 98년 서총련의장

“민중을 위한 투쟁으로 우리는 단결할 수 있다”



서총련 의장으로 당선된 소감과 대의원대회에 대한 소

경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번 대의원대회는 서총련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기본 마음은 끝지만 무정으로 서총련을 만들 아니거나 한다는 책임감과의무감으로부터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겠다.

일정대로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하자면 4시간 정도 진행한 것만으로 우리와 커다란 투쟁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경찰로부터 공개적으로 침입하였고 밖쳤고 학교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했으나 하면 인기부에서도 계속적인 협박이나 있다. 하지만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키자는 기운 일군들의 노력과 힘들이 모아졌다. 또한 서울대학생들이 대의원대회를 평화롭게 개최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측의 침입 위협으로 인해 대의원대회가 끝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충노소 본관 등을 훤히 침행되자 진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당시 나는 임시의장을 뽑을 시기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기층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

우연히도 단기로 종합한 시기인데 서총련은 그동안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단결을 도모할 것인가.

제작은 남아있다. 그러나 서총련이 건설되었고 서총련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투쟁해야 한다. 경과와 전례의 차이를 넘어서 같은 실천적 모습을 통해서 단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시기 종합한 문제인 경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 투쟁, 학생운동 탄압을 막아내는 투쟁, 주한미군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와 이름난 국가정보원으로 비판받았던 국가부부 해체 투쟁, 양심수석 방등의 고리를 가지고 함께 한반도 분열에 단결할 수 있다.

서총련을 평화로운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5기 학교가 서총련을 평화로운 학교로 만들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지도 민중의 요구에 회답하는 투쟁은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부

기자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지금 다 연행됐어”

지난 14일, 용산구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도원동 철거민을 찾았을 때 들은 첫마디는 “함께나온 한미리를 풀던지는 이성(40)씨는 여러차례 이런 일을 겪었더니 드 체념한 모습이었다.

정식으로 접두신고를 하고 신고서 접수 중에 기록에 있는 학진코스(용산구청-경찰서-용산구청)를 찾았을 때 철거민들은 용산경찰서 앞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떠났다. ‘나’ 접이어졌다. 자리 자리를 넘기고 있었던 우리들만은 안 접하기로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한편 경찰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고 경찰을 원천봉쇄해 대의원대회를 저지시키려 했다. 이에 서울을 제외한 후 충북 충주시 확정은 종아워워(충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내어줄 수 없는다는 것이 용산구청 측의 주장이다. “용산구청장이 ‘내’ 사전에는 절대 가수용 단지가 없다”면서 김기라에서 살던지 죽던지 우리는 상관 안한다고 대놓고 말해요. 그리고 철거민은 구민도 아니라고. 구민도 구민 나름이라...” 이복희(36)씨는 솔송을 용산구청장 얘기가 나오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설기 위한 노숙투쟁. 그것은 청거때와 다른 특별한 생활을 연다. “며칠 전에는 비가 와서 전 천막에서 경찰직원이 무지막지하게 걷어가 버렸어요.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압수해 기자 입주도, 구청장 면담을 신청하고 들어가기도 둘러나온 심상이에요.”

물론 이 모든 일의 집행에는 구청직원들의 온갖 육욕과 죽음이 수반된다고 한다. “맞고, 말리고, 치고, 들고... 뱀이 휘감긴 경계지표를 물에 빙 푸성하세요” 그간 힘들었던 점을 이씨는 한동 없이 쏟아놓는다.

물대풀과 너무 많아 빛이 쇠약한 날씨에도 두꺼운 계��을 입어야 하고, 농약과 살충제가 섞인 시비린 물은 몸에 뛰어드는 데까지 허기 때문에 밤마다 일광으로 상쾌화되는 이복희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라며 기자에게 반문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다.

김경신 기자

사회부

총 대의협력국 관계자는 “그간 우리가 주장해온 것은 경조조 합법화와 이재 와서 전교조를 통한 노동자체계 즉, 불법단체인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수 있는 얘기”라며 설립신고서의 보완 외에도 요구되는 내용은 명분이 밝았다. 1기 노사정협회에서 “경조조 합법화”와 “사업자 노조기구와의 협용”을 청원한 상황에서 일어난 이번 설립신고는 반려는 2기 노사정위원회 청원에 걸맞다.

한총련, 명동성당 단식농성 펼쳐

한총련 단식농성단은 지난 10일(금)부터 명동성당에서 IMF 재협상을 겸비하고 철회, 김영삼 구속처방,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기자로 향했다.

한총련 단식농성단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하면서 청탁을 했기 때문에 경찰과 청탁을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당시 경찰이 노숙을

'아래' 가서야 한총련이 산다

과·단대 학생회 일꾼 부족… 사람을 남겨야
학회·소모임 재건, 교육 내용 정립 필요

한총련의 위기는 말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몇몇 대학이 한총련을 탈퇴했다는지,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체를 만든다는지 하는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실상처 않게 들려온다. 일부의 한총련 탈퇴 움직임과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체 결성 움직임 위에 정보기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얘기도 실독력 있게 흘러나고 있다. 한총련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느끼자는 정권의 탄압(정권과

체가 무색하게)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게다가 한총련 얘기만 나오면 옹호 폭력과 이적으로 매도하는 언론의 보도 속에 또한 한 루를 단단히 하고 있다. 모든 기독권들이 한총련 축제에 참여되어 있는 지금 어찌만 한총련의 위기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만이 더는 아니다. 분명 한총련에게 돌아가는 외부적인 탄압 이외에도 내

부의 문제는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그 내부의 문제, 즉 한총련 혁신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여기서 본보는 한 가지 명확한 전제를 내리고 이 기획을 시작하겠지만, 한총련 혁신의 문제는 한총련 변화가 아니라 한총련의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강화의 의미는 단순히 한총련의 외형을 단순하고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총련의 주민인 학생들에

서 그 자리에 역할과 위상을 단단히 코크 드는 것이다. 혁신은 강화를 위한 방법이다. 그 방법중의 또 다른 하나가 변화인 것이다. 이번 글은 먼저 한총련에게 제시되는 혁신의 자침들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이후 한총련 강화를 위해 가장 절실했던 기준 학생회 강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편집자

좀 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한총련이 하는 모든 회장을 공권력을 동원해 원천봉쇄하고 연예에 가는 것은 우리 회집에 대한 공격적인 폭력인 것이다. 한총련은 불기파하게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기계적으로 누가 먼저 들을 듣는느낌은 문제로만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폭력투쟁 일년도의 전술적 반복이 한총련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총련이 폭력투쟁 일년도의 전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문제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 한총련 집행부는 활동했던 김모씨는 이에 대해 "일례로 이번 지난 4월 한총련 대의원대회 개최 보장 투쟁에서는 폭력투쟁 일년도의 전술을 적용했다. 이는 모지역총련에서 '한총련=도급기부들은 무언여없이 물어졌고 기증에서 상당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춰보면 지난 해와 투쟁방식에서 달라질 것 같았지만 한총련은 그대로 살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책임과 한총련 위기의 모든 원인이 중집에 있다며 중집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를 전술을 구사하는 이를 이 무조건적인 폭력투쟁 일년도의 전술을 짜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또 다른 것으로는 한총련 조직내에서의 비민주적이고 폐관적인 모습에 대한 문제제기다. 이는 지난 5월 강위원 한총련 의장이 연행되고 난 후 의장 권한행사를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올해 일시의장 선출과정, 한총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인선 과정에서 폐관적이고 비민주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먼저 인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 한총련 일시의장과 중집 인선의 과정은 현대 의장(임을 시 권한대행)이 인선소위를 구성하고 그 인선소위에서 일시의장과 중집을 인선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체계하고 정식으로 인준을 받는 것은 대외원대회에서의

대외원동의 판단이다. 올해는 일시체계를 세우는 작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재성(동안·중국4군)은 "일련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불거지길 했지만 그것들을 비판적이거나 보는 힘들다. 그것은 일정정도 과정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즉 지금과 같이 한총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객관 사실로는 한총련 자체가 전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제기는 그것이 올라온 저마다로 설득력을 갖기 힘들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한총련에 대한 혼란을 불신을 조장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PC 통신망에 아무런 여의없이 물어졌고 기증에서 상당한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한총련에서 일련의 과정에 매끄럽게 진

행되었던 것은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이 일부 정치와 한총련의 협력이나 정장을 위한 정치적·종파적이라는 주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점은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단체나 과학생회이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대학

에서 한총련 혁신의 자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총련에 대한 기초 학생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초 학생회는 단체 및 과학생회 (기초·방문·교류)의 약화다. 단체 집행부의 일을 들어보자. "한총련의 기본은 기초 학생회, 즉

용인, 확대운위 오늘 개최

특감 결과 보고, 투쟁계획, 한총련 혁신 방향 토론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7차 확대운영 위원회(회장 대외위)를 오전 18일(일)에는 6시 도서관 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확대운위는 △성원집침 기관인 인증 △건강로는 희의록, 점검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은 △학자부전으로 관계 교육부 특별감

사 보고 △학원자주화투쟁특별위원회(학자부) 투쟁계획 △대외운영 기회인 밤제 등에 대해 토론 및 결정할 계획이다. 또 한국대학총학총연합회(한총련)의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김경석(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이

번 확대운위는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와 이후 부정 방향에 대해 과회장 이성의 확대운영위원회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학생참여제 재단 설립을 위한 대학운영방향 건설을 목표로 학우들과 함께 열심히 토쟁하겠다는 결의를 높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 동대, 체육대회 개최

교수와 함께 하는 자리 마련

용인배움터 동양대학생회는 오는 20일(수)부터 22일(금)까지 3일간 대운동장, 소운동장, 농구장, 여자장소에서 「11대 해방 동양대학 체육대회」를 진행한다.

종목은 축구, 여자배구, 농구, 여자 펑크리그, 등이다. 21일(목)

까지 모든 예산 경기를 펼치고 22일에는 결승전과 폐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며 경기 시간에 늦거나 선수수가 모자라면 기관으로 인정된다.

다른 체전들은 달리 용인전 짐수도 팀점수에 포함된다는 이번 동대 체전

에 대해 동양대학생회 사무국장 박애리(동학·태국어 3)장은 "동대 1200 학우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교수님과 함께하는 운동회로 이를 예상이다"며 "운동장을 아끼는 학우들로 가득 차는 운동장뿐 아니라 재단부정 승리를 다짐하고 단결을 결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 신대 기념관 건립 위한 운동을 벌이는 총여학생회장을 만난



“정신대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사람



접시된 사진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미팅 앞에서 많은 여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 임신으로 배가 불리워 있는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큰 구렁이 속에 여자 시체들이 쌓여있는 사진까지... 10여개 낮지 않은 테이블을 기득 매운 손님들과 전시물을 구경하는 학생들도 학생회관 로비는 북적거린다.

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중요한 관점의 문화”라며 정신대를 비비로운 여성기금이 그렸다. “정신대 할머니를 도와주겠다는 기금을 여성 단체들이 외고로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학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시아 여성기금”은 역사적인 잘못을 예회, 은폐하려는 일본정부의 수단인 뿐이죠. 디자인으로 예기 하자면 너희를 ‘불쌍해’ 돈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역사의 심판과 함께 공정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배襟신혜양은 주장한다.

기념관 건립은 왜곡된 진실을 그리고 정신대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는 의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기념관 건립에 쓰리며 평생 모든 돈 1천만원을 기탁하겠다는 어느 정신대 할머니의 모습과 소박한 이를 찾침의 풍경이 겹쳐온다. 김경신 기자

외발추 수습위원 모집

외대발전계획 함께 추진할 98학년 대상

외대발전추진위원회(외발추)가 수습 위원을 모집 중이다. 지난 9년 학자부 장을 겪으면서 학교발전을 고민하는 곳으로 자리매김을 한 외발추는 이번에 모집한 수습위원들과 함께 외발전 계획을 잘 짚어보는 세울 계획이라 한다. 대상은 98학년 새내기이거나 연중 내내 모집을 할 계획이다.

외발추는 또 대교발전추진위원회 건설 도 과학회에 제안한 바 있다. 과학

생들의 외대·과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외대·과의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연구하는 기관인 과발추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다.

외발추장인 세정현(서양·러시아어)은 “을 통해 투쟁의 승리를 통해 지난 시절 외대학생들의 폐해감이 극복되었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학교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마다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용인, 5·18 광주 순례 다녀와

전야제, 18주년 기념 행사 등 참여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5·18 광주 순례단을 구성하여 지난 16일(토)부터 17일(일)까지 1박 2일간 5·18 광주민 중앙집권 현장학회를 다녀왔다.

이번 광주 순례단은 5·18 광주민중 항쟁 전야제 행사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대(국민연대)주최의 18주년 기념식에 참여했으며 광주동 5·18 묘

역에 참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중앙집권위원장 김강식(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최근 계승은 재단투쟁문제로 준비를 많지 하지 못했다”며 “광주 순례를 통해 학우들이 5·18 정신을 기르고 열심히 재단투쟁을 계속이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협, 북한 동포돕기 족구대회 열어

“북동포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될 것”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생협)은 오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3일간 ‘북한동포돕기 족구대회’를 진행한다. 접수는 오늘(18일)까지 생협 학생위원회에서 받으며, 경기비는 3만원(1팀 당 4명)이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족구대회를 준비한 생협 학생위

원회 위원장 변기영(동학·아프리카어 4)군은 “단순히 몇 명의 상당이 걸친 족구대회가 아닌 ‘북한 동포돕기’로 둘째 족구대회보다는 더 좋겠다”며 “그냥 간단한 운동이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학우들이 북한 동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15만원, 준우승 10만원, 3등 7만원, 4등 5만원이 수여될 예정이다.

● 라령-학자진군가

참교육 바로 세우기 꿈 담긴 노래

외대 총파업 때,
우리는 중간고사를 아무 생각없이 안 보지
않는다. 바깥으로 드러나서 점은 제단 비리와
부정을 밝혀내어 올곧게 비로잡고자 한다. 그
러나 비리를 물어내려 할 때 비리주범이 거세
게 베이고 되려 우리를 얹으르려 한다. 그래서
서 우리 권리인 수업권을 무너지며 맞선다.

“그네 너희가 짓밟아도 우리의 갈 길은 간
다. 너희가 우리를 막아도 우리 갈 길 멈출
수 없다”

참된 길, 옳은 길은 거칠다. 악서는 이는
우리를 짓밟는다. 매도도 한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참되거나 옳은
일을 멈출 수는 없다.

“희망이 있는 청춘은 아름답지 않은가
자주의 터전 신뢰의 터전 우리에게 희망이
지 않은가”

외대 발전, 나야가 참 교육 바로 세우기를 보
는 우리를 끔기 때문에 우리들모습은 이롭답
고, 참 교육을 바리는 꿈을 우리 스스로 깨닫



아 이루어 애쓰기에 우리들 모습은 이롭답다.

을 다지고 뜻을 모을수록 더 예듯하게 다가오는 “학자진군가”에서 새 구는데 아쉬운 곳이 있으요.

1) 우리의 갈 길은 (→) 우리 갈 길을 / 우리
는 갈 길을 : 바로 다음 동기에서는 “우리
갈 길”로 봤다. 그런데 앞에서는 “나의 살던
고향은”에서 쓰듯 ‘의’를 써서 잘못되었다.
이곳에서 쓴 ‘의’는 ‘는’ 구실을 한다.

2) 신뢰 (-) 믿음 : 우리는 ‘믿는다’. 외대
발전과 개혁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
는다. 우리는 서로를 ‘믿’ 뿐이다.

3) 외대훈 (-) 외대업 : ‘훈’이라는 말은
자주 써서 우리에게 낮익은 말인지도 한다.
그러나 ‘열’이라는 우리말이 있다. ‘열차’에
도 쓰고 ‘조선의 열’ 할 때, 열왕 같은 곳에
서 보듯 ‘열’로 옮길게 아니라 더 일맞다.

우리말을 제대로 살피려는 노력이 더 힘이
있으며 이를다운다. 참 아름다운 말은 가락마이이 아닌 노랫말과 그 속에 담은 일이 모두 어우러져야 이뤄진다. 말은 ‘열’을 담아야 참 기운
이 난다.

최종규
(서양·네덜란드 2)

해질로부터 저녁 늦게까지 문화공연을 함께
하며 힘다지기를 했다. 막판 자우림 공연은
우리를 즐겁게 했지만 그 뒤로 공연 분위기
를 적잖이 흐트리거나 끼기도 했다. 우리 힘

“하우여 외대훈을 묻거든 여기 사랑하는 투
쟁하는 청년 청년 전사를 보게 하라”



태국의 ‘송끄란 축제’는 우리나라의 설과 같다. 사진은 자동차안으로 물 세례를 하는 태국인의 모습이다.

우리 부부는 지난 3월 17일 제태 태국어과
카에서도 큰 면적을 삼고 있다.

동문회 초청으로 태국을 방문하여 제자들이
상대에게 배풀이 준 회갑연을 참석하고, 이어서
제자들이 미련한 준 일정에 따라 휴양지
관광, 제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한국 기업체
순회 방문, 제자들의 가정방문 및 개별모임
참석, 풀리통견대학원 등 자비대학을 방문하
여 학문교류 및 학력증진 방학연회와 제자 유
학생들에게 대한 격려, 그리고 태국의 북부 제
2도시 ‘치앙마이’에서 열린 ‘송끄란’ 축제를
관람하고 4월 17일 귀국했다.

4월 8일에는 지대학교인 줄리통견대학교를

방문하여 그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전공 과목
으로 설정하는 문제와 한어학 교수 요원 파견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대학의 문과 대
학 장인 간디와 교수는 내가 6월에 부비파대학
에 책임교수로 오게 되면 1학기에는 하루는

줄리통견 대학교로 출강해 달라는 요청을 받

고 매우 난감했었다. 그래서 생각 같에 약 1

주일 전에 이 대학 대학원 비교문화과에 정식

으로 입학한 신근혜(태국어과 90학번, 94년도

외대 최우수 졸업생) TA(강의 조교)로 한

국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접속적으로 수용하고 전 외비를 면제

해 주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겠다고 익숙했다.

그리고 외대 태국교과의 정임 교수들이

안식년을 이용하여 이 대학에 책임교수로 와

서 강의를 줄 것을 요청 받았다.

4월 13일은 태국의 최대 명절인 ‘송끄란’ 축

제가 열리는 날이다. 우리부부는 4월 9일 이

축제를 관광하기 위하여 방콕에 800킬로

리점에 위치하는 ‘치앙마이’를 항공기 편으로

방문했다. ‘송끄란’은 본래 인도의 브라만식

설날로서 새해가 시작되는 첫 날이다. 태국에

비롯해서 미얀마·로마·캄보디아·스리랑

아침식사 뒤에는 집안의 어른과 가까운 친
척, 혼경이라는 분들에게 차례로 세례를 한다.
태국식 세례는 두 단계로 있는데 앞드려 흰장
을 한 다음 세례 받는 사람의 손바닥에 식물
에서 채집한 태국 전통의 향수인 ‘남을’을 약
간 부으면서 드리면서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경수하시십시오’라고 축복한다. 세례 받는
사람은 향수를 자신의 머리에 바르고 덕담을
들려주는 것으로 드리운다. 물론 아이들에게
은색햇빛을 약간씩 주기도 한다.

그 다음으로 본래의 물세례를 놀이기 시작
된다. 이와 같이 물뿌리기 놀이의 유래는 향
수를 뿌려주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향수
의 값도 비싸고 그 암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
에 물에 향수를 흘려 뿌려 주다가 나중에는
이에 향수를 터지 않고 물로만 뿌리게 됐다.
물론 친수하지 않은 이와의 청춘 남녀들이나
이번인들에는 예의를 지키 손에 향수를 흘
려 물에 상대방의 몸을 뿌리면서 덕담을
주고 받지만 형제들이 친한 형제들에 비해 손에 향수
를 뿌리는 경우가 많아 형제들에 비해 물놀이에
인기지 않아 이 놀이가 점차로 낮은 낙선 이방
인이나 지나간들도 물세례를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번인들은 누구든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불
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밖에 ‘가우송끄란’이라고 하는 쌀밥으로
만든 우리 나라의 감자와 비슷한 일종의 밥효
음식을 각 사람의 스님께 보시하는데, 이를

그 중에서 태국의 ‘치앙마이’와 축제가

가장 대체롭고 가장 활기찬다. 4월 13일을 전

후에서 3~4일간 전 도시가 오가는 사람들을 서

로간으로 물세례로 인해 마치 비오는 날과 같아

졌다. 있어 전국에서 물려온 태국 관광객과
서양 관광객도 함께 어우러져 물을 뿌리고
맞으며 웃는다. 이 때 이곳 기온은 섭

씨 38도~40도 정도로 매우 무덥다.

이 물뿌리기 축제 이외에도 오전에는 ‘송끄
란’ 미안 실발대회와 오후에는 꽃나들이 축제를

개최하는데 대회에서는 꽃나들이를 예쁜 민족 의상
과 청바지나리나 각 기관에서는 자기집 자녀

들을 비끼며 축제를 즐기고 있다. 이날에는

제작된 꽃나들이를 빛나게 하고 외부나 사람과 접

촉하여 대인관계를 빛나게 하고 이성에게 선을

보이는 결혼의 기회로 삼는다. 절에서 돌아온

때는 축제들이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지리는
나무에 신선한 물을 뿌려 주듯이 그 처녀들에

게 향수를 탄 물을 뿌려 준다.

최 창성
(태국에서 교수)

타고 놓는 풍습입니다

흔지수 김상경이 이어온 외대인의
직장을 찾습니다
문예동·시·예술·미술·민족·강고 등
모든 종류의 직장을 찾습니다
디비디 기관의 학생연회와 민족당
정기이나 이어 교수·교학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여합니다
제작된 꽃나들이에는
소집의 원고로 드립니다

외대화보

사이버 한총련 대의원대회

정권은 작금의 경제위기에 노동자 학생연대를 차단하
고 한총련 재건의 막바탕이 될 대의원대회를 무산시
키기 위해 7천여명의 경찰병력과 헬기까지 동원함으
로써 충돌을 유발시켜 한총련을 왜해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1> 6기 한총련의장 선출

- 각 후보들의 선거유세는 모든 학생들이 보도록 각 대학에
서 비디오로 상영합니다.
- 전체 대의원들이 각 지역별로 투·개표를 동시에
으로 진행합니다.
- 후보들의 질의, 응답은 대화방을 통해서 합니다.

<2> 총노선 등 기타 안건

- 통신 대화방을 통해서 토론과 의견수렴을 합니다.
- 각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의견을 종합하고 중앙상임위에서
최종토론한 후 본인, 개인의 등을 안건표결에 부집니다.

한총련은 이러한 김대중정권의 탄압을 대대적으로 알
려내며 국민들과 학우들로부터 지지·성원을 이끌어
보다 많은 대의원들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
자들의 신변도 보호하기 위해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3> 일정

- 18일 ~ 24일 공식선거활동기간이며 총노선 토론을 전개합
니다.
- 25일 의장을 선출하는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합니다.

민족주연
외대화보